

## 13과 서로 다르지만 존중해요

1일	<p>1.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예요.</p> <p>2.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배필로 만드셨어요.</p> <p>[설명]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족을 표시했지만, 사람을 지으신 후 창조의 모든 것을 보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p> <p>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즉,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목적(하나님을 대신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 창세기 1:26 뒷부분)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가져야 할 특성(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26 앞부분)을 설명해주셨고, 창조 후에는 사람이 할 일(창세기 1:28)을 설명해주신 것입니다.</p> <p>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를 위해 사람이 가져야 할 특성,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p> <p>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람의 창조 과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십니다.</p> <p>첫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성품과 특성이 있다는 것과, 사람 각각에게는 알맞은 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창세기 2:18).</p> <p>둘째,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창세기 2:24).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성품적·정서적 특징이 다르지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육체적·영적·성품적·정서적으로 연합하고 배우자를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p> <p>3.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p> <p>[설명]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 신비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p> <p>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압박의 심화로 결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혼해도 자녀 낳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누어주세요.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p>
2일	<p>1.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창세기 1:28),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살라(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에베소서 5:33).</p> <p>[설명] 처음 가정을 이룬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창세기 2:25). 즉, 부부는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여야 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충만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남자는 아빠가 될 수 있는 몸으로, 여자는 엄마가 될 수 있는 몸으로 자라요(성적인 차이가 있어요).</p>



3일

1.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여자)로 창조된 내가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가 좋은 남편(아내)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지금 해야 할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해요, 남자는 남자답게(여자는 여자답게) 나의 몸을 소중히 잘 가꾸며 자라야 해요 등

[설명]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자녀 세대에서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세태들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리미리 자녀들과 대화하며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 때부터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미리부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동성을 좋아하는 감정은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몸의 특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2. 자신의 성별이 싫을 때가 있었는지, 언제였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있었어요. 나도 남자지만 약한데, 여자는 약하니 자꾸 돌봐주라는 말을 들을 때 좀 억울했어요.  
• 있었어요. 난 축구가 너무 하고 싶는데 여자 축구선수가 별로 없다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 속상했어요.  
• 남자(여자)인 적이 싫은 적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성별에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남자(여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해 줘요.  
• 너를 남자(여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만족할 때도 있으니, 그때를 생각하며 너의 몸을 소중히 잘 가꾸며 자라가자고 말해줘요.

[설명] 하나님은 남녀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의 몸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점점 다른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 기존의 성 인식에 따라 자녀들에게 “너는 남자(여자)니까 ... 해야 돼(하면 안 돼)”라고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신 ‘하나님이 남자(여자)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남자(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게 하셨는지’, ‘남자(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는지’, ‘어떻게 자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등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자라면서 남자임에도 여성적 성품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자지만 남성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주신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성 인식에 맞게 자녀를 바꾸려고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품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남자(여자)로 만드신 나를 잘 인식하고 관리하며 자랄 수 있도록 성경적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일

1. 다른 성별의 친구를 멀리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여자아이가 축구하고 싶다고 자꾸 말해서 꺼지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옷에 관심이 많은 우리 반 남자아이에겐 여자 아니냐고 흥을 본 적이 있었어요, 친구와 모둠 활동을 해야 했는데 나와 다른 성별이라 같이 하는 게 불편하고 싫어서 말을 걸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등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들이 하나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싫었어요 등

2.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다른 성별의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친절하게 대해줘야 해요.

1. 나와 다른 성별의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가 자라서 좋은 엄마(아빠)가 될 수 있도록 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써요, 지혜가 자라도록 공부에 힘써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에브리데이를 통해 말씀 공부에 힘써요 등

2.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자라서 좋은 엄마(아빠)가 될 수 있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써요, 지혜가 자라도록 공부에 힘써요, 에브리데이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요 등

나와 다른 성별의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동생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있을 때 대신 들어줘요, 부모님이 고장난 물건을 수리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드리며 도와요 등



## 14과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1일	<p>1. 주변에 피부색이나 말이나 신체 등이 다른 친구가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인 친구가 있어요, 몸이 불편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등          나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좀 불편해서 멀리하고 있어요 등</p> <p>2. 나보다 멋져 보이는 친구나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멋져 보이는 친구에게는 관심이 생겨서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는 쌀쌀하게 대해요.          친구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친구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p> <p>[설명] 한국의 문화는 (인간관계와 도리를 찾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관계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는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혈연·학연·지연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문화 습관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당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다양한 민족이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입니다.</p>
2일	<p>1.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거나 내 발 밑(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했어요.</p> <p>2. 부유한 사람은 귀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태도는 왜 생기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따르려는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이에요.</p> <p>3.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하셨어요(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의 더 큰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소중히 대해야 해요.</p>
3일	<p>1.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p> <p>2.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창세기 1:27),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마태복음 22:39).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p> <p>[설명]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차별이 죄의 결과임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게 합니다(로마서 1장). 그러므로 친구를 차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차별은 교만의 결과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을 넘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뚤어진 영향으로 교만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항상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p>
4일	<p>1. 나도 겉모습이나 옷차림으로 친구를 차별해서 대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네, 멋진 옷을 입었던 친구에게는 웃으면서 대했지만, 머리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던 친구는 피한 적이 있어요.</p> <p>2. 친구들이 나를 차별한 적이 있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세상의 차별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 제가 **(이)랑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는 잘 어울리지만 저는 웃기고 동물을 닮았다며 친구들이 놀렸어요. 그때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슬프고 아플 것 같아요.          • ○○(이)가 생일파티를 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다 초대했는데, 나는 빌라에 산다고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차별받는 사람들은 모두 슬프고 속상할 것 같아요.</p>
5일	<p>1.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차별하여 대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네, ○○(이)는 글자를 읽거나 쓰고 말하는 게 느린 친구인데, 제가 “넌 왜 이렇게 느려! 너 혼자 해!”라고 말 해버렸어요. 앞으로는 도와주어야 할 ○○(이)를 이해하고, 도와줄 때 더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p> <p>2. 주변에서 차별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주로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지, 차별받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네, 우리 집 주변에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가 계셔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나와 행동이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되어요.          나는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폐지를 수거하러 오실 때, 음료수를 드리고 힘내도록 도울 수 있어요.</p> <p>[설명] 부모님은 자녀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친구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없을 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편향된 성품이 있는지 늘 세심하게 찾아 살피고, 자녀의 자존감을 바르게 세워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p>





## 15과 하늘 가족 캠페인: 언어 편

1일	<p>1. 나는 어제나 오늘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오늘 아침 학교에 갈 때 엄마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학교 잘 다녀오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p> <p>2. 내가 한 말 중에 선한 말은 무엇이었고, 악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에게 “너랑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어서 행복해”라는 선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동생에게는 말할 때마다 비웃으며 “응, 아니야~”라고 악한 말을 했어요. 왜 우리는 선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도 하게 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뒷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돼요.</p>
2일	<p>1. 남에게 들었던 말 중에 내 마음을 가장 상하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친구보다 늦게 달렸더니 그 친구가 “내가 걸어가도 너보다 빠르겠다”고 비웃으며 했던 말이에요. 내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듣기 좋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아니요. 좋지 않아요. 왜 나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가 하는 말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등</p> <p>2. 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 부모님이 게임을 그만 하라고 하면 “아,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끄라고!”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나쁜 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아이, 씨!”, “어쩌라고!”, “응, 아니야~” 등</p>
3일	<p>1.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고 말씀해요.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이, 잘못 사용하면(악한 말을 하면) 혀(말)로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도 지옥 불에 타는 것 같은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해요.</p> <p>2.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해요.</p> <p>3.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을 하면서 혀를 다스릴 수 있어요. 또 작은 키를 조종해 사공의 뜻대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면서 혀를 다스릴 수 있어요.</p>
4일	<p>1.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해요.</p> <p>2. 야고보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해볼 때, 나는 어떤 말을 하기로 결심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악한 말(나쁜 말)은 하지 않고 선하고 좋은 말을 하기로 결심해야 해요.</p> <p>3. 한 샘물에서 단 물과 쓴 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야고보서 3:10-11). 또 선하고 좋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유익)를 주기 때문이에요(에베소서 4:29).</p>



5일

1.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부모님	“내 마음이라고!”, “상관하지 마!” 등	“지난번 나쁜 말을 해서 죄송해요.” 등
형제자매	“어쩌라고!”, “꺼져!” 등	“하면 안 돼.”, “잠시 비켜 줄래?” 등
친구들	“야, 그것도 못하나?”, “응, 아니야~” 등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응, 알았어.” 등

2. 악한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나쁜 말)을 할 때 그 말이 악한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친구들도 다 하는 말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등

그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마음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이 마음은 내가 없애야 하는 마음이에요.

3. 다른 친구나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요.

[부모님께]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 특성으로 언어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삶과 문화를 발전시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음의 주제로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며,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①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우리는 말할 때 접속어(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등), 감탄어(와, 예, 야 등), 습관적 반복어(몰라, 진짜 등) 등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족과 함께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왜 그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되는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서로 찾아봅시다.

② 내가 자주 하는 나쁜 말이나 욕설은?

온 가족이 자신이 자주 하는 나쁜 말이나 욕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이때 서로 꾸짖거나 화내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그리고 욕설을 자주 하는 가족이 있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욕설을 그만두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③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④ 내가 말을 잘못하여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을 잘못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때도 서로 꾸짖거나 화내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평소 생각의 결과가 말로 나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설 때 좋은 말을 하게 되므로, 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키도록 격려해주세요.



## 16과 하늘 가족 캠페인: 자연 관리 편

1일	<p>1.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여기신 것이 무슨 뜻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창조되어 만족하신다(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p> <p>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무슨 뜻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자녀를 많이 낳아 땅에 널리 퍼져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만족하고 기뻐하신 대로 세상을 보살피고 지키라는 뜻이에요.</p>
2일	<p>1.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창세기 3:17).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창세기 3:18 앞부분). 땅에서 나는 생산물들이 어떻게 된다는 뜻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땅에서 나는 식물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이 자라게 되면서 영양분을 뺏겨 열매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된다는 뜻일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결실(열매)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뜻일 것 같아요 등</p> <p>2.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예요.</p>
3일	<p>1.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만족하셨던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땅과 자연을 잘 돌보고 지키기를 바라세요.</p> <p>2.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요. 사람이 땅과 자연에게 한 큰 실수를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건물이나 시설을 많이 지어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함부로 버려서 바다의 생물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어요,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며 더러운 연기를 내뿜어서 공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심해졌어요 등</p> <p>[설명] 사람들이 자연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발달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병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 자원을 이용하는 것들, 편리한 플라스틱 도구들, 냉난방에 필요한 자원들, 맛있게 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들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연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에 자연을 훼손합니다. 쓰레기들,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들, 산업 및 생활 폐수를 흘려보내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의 절제와 희생이 필요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p>
4일	<p>1. 내가 땅과 자연에게 잘못된 일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음료수를 마시고는 쓰레기통까지 들고 가는 게 귀찮아 그냥 길가에 음료수병을 버렸어요, 친구랑 탕후루를 먹고 꼬지를 아무데나 버려서 주위를 끈적거리게 했어요 등</p> <p>2. 땅과 자연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나와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① 포장한 음식을 주문할 때 집에 있는 냄비나 그릇을 가져가서 담아오기(1회용 그릇 사용하지 않기) ② 액체 세제보다 고체 세제 이용하기(액체 세제 담은 플라스틱 용기 사용 줄이기) ③ 음료를 마실 때 1회용 컵에 담지 않도록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p>
5일	<p>1. 다른 사람이 땅과 자연을 손상시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생각하며, 땅과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손상된 것을 고쳐야 해요.</p> <p>2. 땅과 자연이 회복된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멋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등</p> <p>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땅과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p> <p>[설명]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그분의 뜻대로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p>



## 17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요

1일	<p>1. 내가 경험한 옳지 않은 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옳지 않은 일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급식실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밀어서 발목을 다쳤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지나가는 사람을 흥기로 공격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어요.</p> <p>2. 세계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 중이에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죄로 인해 사람과 나라들이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에요.</p> <p>[설명] 죄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을 손상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욕심(로마서 1:26)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의 다스림을 받아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등 악을 행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롬 1:32).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욕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2일	<p>1.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뒷말, 비방,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중 자신이 이해한 7가지를 적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이유를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p> <p>2.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에요.</p> <p>3.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p>
3일	<p>1.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베드로전서 3:18)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고린도후서 5:17).</p> <p>[설명] ‘거룩’은 ‘구별’, ‘구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죄를 따르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야 합니다.          또 선하고 바르게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룩해야 합니다.</p> <p>2. 에베소서 4:25-32를 참고하여 자신이 지금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④ 어제 우리 반 친구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고 위로하기보다는 웃긴다며 비웃고 놀렸어요. 앞으로는 친구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 비웃고 놀리는 말을 하는 것을 고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며 도와줄 거예요.</p>
4일	<p>1. 선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어렵다면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나 혼자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부담되어서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나를 싫어할까봐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 것 같아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 어려워요 등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주셨어요.</p> <p>2.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건디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마태복음 10:22)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잘 견뎌야 해요.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갈라디아서 6:9)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선한 일을 해야 해요.</p>
5일	<p>1.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마태복음 5:16).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이유를 물을 때,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이에요(베드로전서 3:15).          나의 착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를 위해 어떤 착한 행동을 할지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니다.</p> <p>④ 내 짝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짝꿍에게 언제나 선한 말을 하고, 먼저 양보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p> <p>[설명]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해주세요.</p> <p>2.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p>





## 18과 믿음으로 승리해요

1일	<p>[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p> <p>이번 주 에브리데이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저희가 이 과를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p> <p>자녀들이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영적 전투(싸움)’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내 욕심 사이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려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이질감)입니다.</p> <p>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영적 싸움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평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p> <p>1. 한 주간 내가 받은 죄의 유혹이나 저질렀던 잘못을 검은 칸에 자유롭게 적도록 합니다.</p> <p>예) 문구점에 갔는데 너무 멋진 샤프가 보여서 몰래 가져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어요, 내 방에서 게임을 실향 해놓고 부모님께는 공부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등</p> <p>[설명] 이제 고학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적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도록 검은 칸에 적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적은 잘못을 끝까지 알아내려 다그치거나 꾸짖기보다는, 솔직히 적은 것을 칭찬하고 용서해주세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했을 때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부모님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p> <p>2.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요(로마서 6:17 가운데 부분). 유혹은 나의 마음의 무엇을 자극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유혹은 내 마음의 욕심을 자극해요.</p> <p>[설명] 나쁜 것임을 알지만 하고(먹고, 갖고) 싶으니까 몰래 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는 드러날까봐 ‘두려움’을 갖게 되어 더욱 더 큰 죄를 짓기 반복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은폐성, 반복성, 확장성)입니다.</p> <p>부모님은 죄의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와 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주세요. 바르지(정당하지) 못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 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은 욕심에서, 동성애는 욕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설명해주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은 참고 이겨내야 할 것임을 잘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p>
2일	<p>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기고 따 먹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p> <p>2.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하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유혹했어요.</p> <p>3. 우리가 죄를 짓게 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바라기 때문이에요.</p>
3일	<p>1. 믿음으로 죄의 유혹(세상)을 이기는 거예요.</p> <p>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요한일서 5:5).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죄)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한일서 3:8 뒷부분), 세상(죄)을 이기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요한복음 16:33 뒷부분).</p>
4일	<p>1.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계명)을 지켜야 해요.</p> <p>2.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p>
5일	<p>1. 친구들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용기를 가지고 거절해야 해요.</p> <p>2. 내가 자주 받는 죄의 유혹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p> <p>예) 하나님, 저는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에 자주 부모님께 거짓말하려는 죄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p>[부모님께] 자녀가 자신이 받는 죄의 유혹에 대해 고백할 때 꾸짖지 마시고, 공감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p>





## 19과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1일	<p>1. 최근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은 후 내 마음은 어땠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의 샤프가 너무 좋아 보여서 친구 몰래 써보려다가 떨어뜨려서 고장을 냈는데, 친구에게 내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나서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후회도 되었어요.</p> <p>2. 어둠(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p>
2일	<p>1.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p> <p>2.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씀해요(요한일서 1:7 앞부분). 하나님의 말씀(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요한일서 2:3).</p>
3일	<p>1. 아니요. 항상 빛 가운데 살고 있지는 못해요. 나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요.</p> <p>2. 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말씀을 지켜) 진리를 알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요한복음 8:31-32). ②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야 해요(베드로전서 5:9). ③ 사람들이 같이 죄를 짓자고 꺾어도 따르지 않아요(잠언 1:10).</p>
4일	<p>1.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해요(요한일서 1:9 앞부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요한일서 1:9 뒷부분).</p> <p>2. 하나님의 말씀(계명)을 지킴으로(요한일서 2:3),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힘써야 해요(2:5). [설명]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 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함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5일	<p>나는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검은 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 늘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친 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기로 부모님과 약속했었는데,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기도 전에 방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방문을 열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척했어요. 그런 모습은 나를 속이는 나쁜 행동인데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게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부모님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몰래 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p> <p>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예 • 공부하는 동안에는 아예 핸드폰을 거실에 두어 보고 싶은 마음 없애기 • 내가 몰래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등</p>



## 20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요

1일	<p>1. 요즘 나에게 염려되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한 친구랑 싸워서 사과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친구가 제 사과를 받아줄지 걱정돼요.</p> <p>2. 염려나 걱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염려와 걱정이 점점 커져서 두려움이 되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등 염려나 걱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에게 용기 내어 사과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요, 시간이 흐르도록 좀 더 기다려봐요, 잘 모르겠어요 등</p> <p>[설명] 우리 자녀들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행복한 삶, 인간관계, 건강 등 모든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자신감은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방법뿐이기에, 어려서부터 두려움과 걱정을 마음에 가두어 놓지 않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연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과를 진행할 때 부모님은 자녀가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간섭하거나 꾸중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2일	<p>1. 자신이 스승인 바울처럼 잘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p> <p>2. 소화가 잘 안 되어 자주 아프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p> <p>3.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간 마시라고 했어요(디모데전서 5:23). 이것은 디모데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디모데후서 1:7).</p> <p>[설명] 바울이 위장병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소화를 위해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한 것은 현대의 단순 음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술이 의학적 효과를 가졌다고 널리 인정받고 있었기에 소화 불량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서 권한 것입니다.</p>
3일	<p>1.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염려를 다 맡겨야 해요.</p> <p>2.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예요.</p> <p>3.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세요.</p>
4일	<p>1.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한일서 1:9), 내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해야 해요(마태복음 5:23-24).</p> <p>2.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구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와 싸운 문제,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는 문제, 우리 가정에 닥친 경제적 문제 등</p>
5일	<p>1. 나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주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해결해주실 때도 있고 해결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등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주세요(빌립보서 4:7).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요한복음 16:33).</p> <p>2. 부모님께 어떤 염려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 아빠: 고등학생인 누나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걱정이래요. • 엄마: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걱정이래요. 염려하는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가 들어드릴 수 있는 염려는 그대로 행동하여 염려를 없애드려요, 내가 들어드릴 수 없는 염려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모님께 위로의 말을 해드려요 등</p>



## 21과 복음을 전해요

1일	<p>1.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며(요한복음 8:34), 흑암의 권세 밑에 사는 사람들이예요(골로새서 1:13 앞부분).</p> <p>2. 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될 수 있어요(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어요).</p> <p>[설명] 복음 전도는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작게는 구원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며, 크게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일평생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생활을 통한 전도, 관계를 통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p>
2일	<p>1.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가복음 16:15)과 나(디모데후서 4:2)에게요.</p> <p>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디모데후서 4:2), 세상 끝날까지(마태복음 28:20)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p>
3일	<p>① 모든 사람은 죄인이예요(로마서 3:23).</p> <p>②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고린도전서 15:3).</p> <p>③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고린도전서 15:4).</p> <p>④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요한복음 1:12).</p> <p>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에베소서 2:8).</p>
4일	<p>1. 어땠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에베소서 5:8)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요(마태복음 5:16).</p> <p>2. 예수님을 모르던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왜 좋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p>
5일	<p>1.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이모와 사촌 동생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 우리 반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망설여지거나 싫어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이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망설여져요. • 우리 반 친구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요. 왜 망설여지거나 싫어지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이모가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해서 망설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실 거예요. • ○○(이)가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자주 화를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하실 거예요.</p> <p>2.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사촌 동생에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일요일은 노는 날이라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해서 속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p> <p>3.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보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디모데후서 1:8).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마태복음 28:20).</p>





## 22과 믿음으로 인내해요

1일	<p>[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p> <p>부모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p> <p>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구신지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르게 사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살게 하신 방법으로 인내하며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의 연습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와 함께해주세요.</p> <p>1.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겪게 된 힘든 일은 무엇인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SNS에 친구들이랑 춤춘 영상을 올렸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때 마음이 안 좋았어요(억울했어요, 속상했어요).</p> <p>• 태풍으로 큰 비가 내려서 우리 집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고생 중이라 속상해요.</p> <p>• 친구가 자기가 잘못된 일인데 선생님께 혼날까봐 내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p> <p>2.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자기가 남기는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댓글을 달기 때문이에요.</p> <p>• 자연재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p> <p>•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p>
2일	<p>1. 한 사람(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로마서 5:12),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로마서 1:28).</p> <p>[설명]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세상과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2.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p> <p>3.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예수님 믿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여름성경학교 기간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수영장을 안 가면 친구들이 따돌릴 것 같아서요.</p>
3일	<p>1.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야고보서 1:4),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요(베드로전서 5:7).</p> <p>2.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에요.</p> <p>지금 내가 인내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니다.</p> <p>예 나를 놀리는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 인내해야겠어요, 친구들과 놀기 위해 숙제와 그날 할 일을 먼저 하면서 놀고 싶은 것을 참아야겠어요 등</p>
4일	<p>1.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인내해야 할 것(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사고로 다리를 다쳐 걷기 힘든 것, 할머니가 편찮으신 것 등</p> <p>• 극복해야 할 것(나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 매일 공부해야 하는 것, 하기 싫은 학원 숙제를 해야 하는 것, 잘못했을 때 사과하기 싫어도 사과해야 하는 것 등</p> <p>[설명]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인내해야 하는 것과 극복해야 하는 것의 두 종류가 있으며, 극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노력 없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p>
5일	<p>1.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야고보서 1:4 뒷부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순수한 믿음을 주세요(베드로전서 1:7).</p> <p>2. 내가 지금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놀고 싶은 것을 인내하며 매일 정한 만큼의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 주위에서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우고 공부할 거예요.</p> <p>• 휴대폰 보고 싶은 것을 인내하며 숙제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 공부할 때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휴대폰을 부모님께 맡기고 보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p>



## 23과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1일	<p>1. 내가 가장 기대하며 기다린 약속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겨울에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처음으로 스키장을 가기로 했던 약속이요.</p> <p>2.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너무 설레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너무 신나서 구름 위를 나는 느낌이었어요!</p>
2일	<p>1.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p> <p>2.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세요(사도행전 1:11). 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예요(데살로니가전서 4:16). 네, 모두 알 수 있어요.</p>
3일	<p>1.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p> <p>2.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고(마태복음 24:36),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사도행전 1:11).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과 다른데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온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요.</p>
4일	<p>1.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의 일에 정성을 다하며 살아요(데살로니가전서 4:11).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야 해요(마태복음 25:40 뒷부분).</p> <p>2. •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굳게 잡으며 살아요(히브리서 10:23). • 무슨 일이든 주께 하듯 하고(골로새서 3:2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요(히브리서 10:24). •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요(마가복음 16:15).</p> <p>[설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장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루어야 하는 목적(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어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성경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태도입니다.</p>
5일	<p>1. • 공부에 관하여: 예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숙제나 공부에 최선을 다해요. •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 예수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해요. • 어른이 되어 직업을 갖게 될 때: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맞는 직업을 골라요.</p> <p>2.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무엇이 힘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해서 힘들어요.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수님을 믿도록 힘쓸 수 있어요.</p>



## 24과 천국이 있어요

1일	<p>1.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있을) 곳이 많아서,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거할 곳을 예비하신 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데려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는 곳은 ‘천국’이에요.</p> <p>2.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p>
2일	<p>1.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요. 커다란 진주 1개로 만들어진 성문이 모두 12개가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밤이 없고 낮만 있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않아요. 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p> <p>2.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p> <p>[설명]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생기게 된 것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생겨난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p>
3일	<p>1.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p> <p>[설명]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곳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잘못되고 손상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성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p> <p>2. •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사람이 죽고 나면 자신이 한 일대로 심판을 받는데(요한계시록 20:12),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요(21:27). •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 있는 사람들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데살로니가전서 4:16-17).</p>
4일	<p>1. 아니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p> <p>2.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되어 예수님이) 올 텐데,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p>
5일	<p>1. 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어요.</p> <p>2. 내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반 친구 ○○○, 학원 친구 □□□, 삼촌네 가족들이요.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고, 하나님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어요.</p> <p>3.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것들을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래요.</p> <p>[설명]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답이 됩니다.</p>

